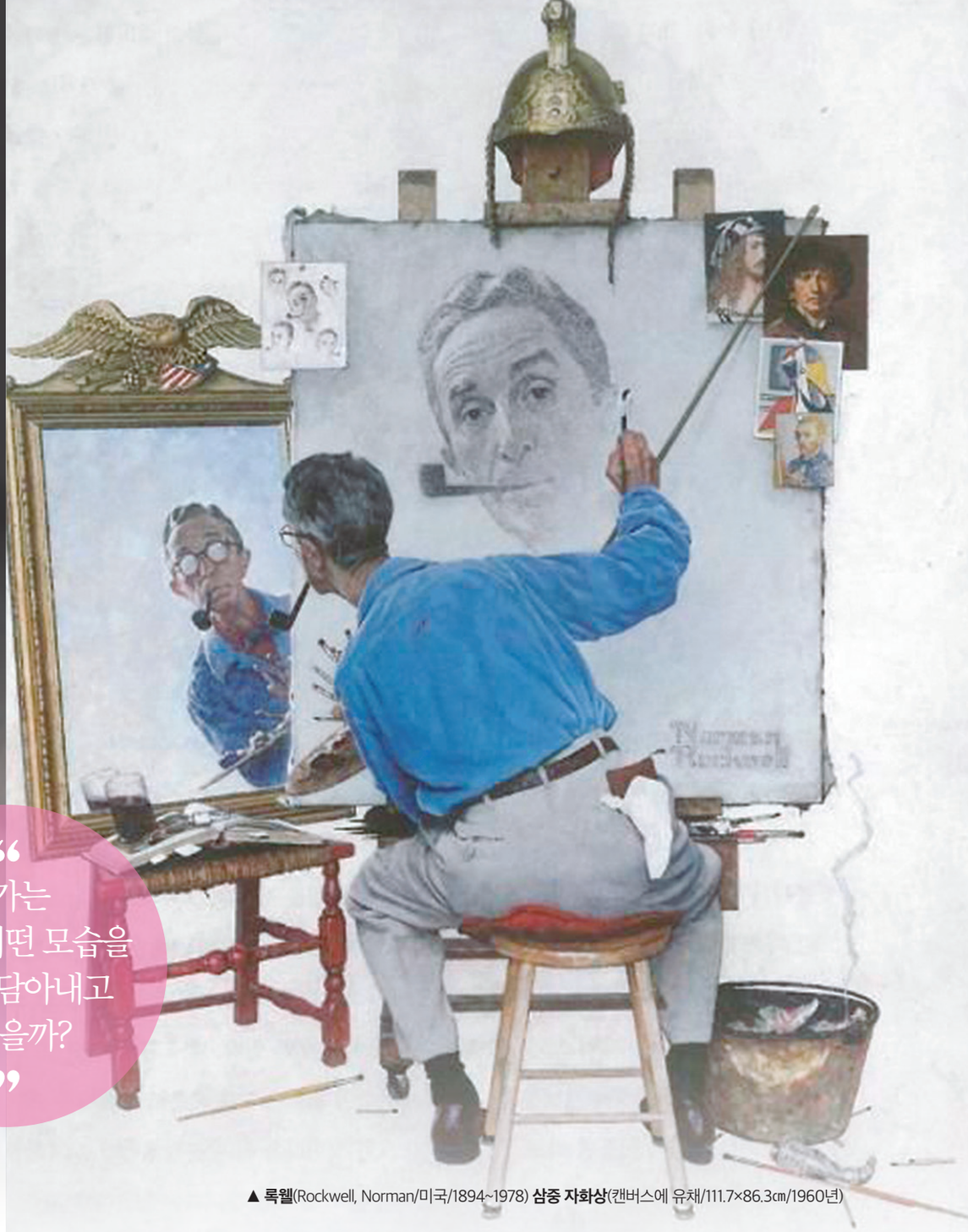
평면과 입체

05 다양한 회화의 세계

1 인물화, 정물화, 풍경화, 풍속화의 특징과 표현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2 회화의 주제에 적합한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탐색하여 대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화가는 자신의 어떤 모습을 그림에 담아내고 싶었을까?"

▲ **록웰**(Rockwell, Norman/미국/1894~1978) **삼중 자화상**(캔버스에 유채/111.7×86.3㎝/1960년)

인물의 개성을 담다

인물화란 사람을 소재로 표현한 그림이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거나 인물 내면의 감정이 잘 드러나도록 표현하기도 한다. 대상 인물이 한 사람이면 그 인물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면 되지만, 인물이 여럿일 때는 인물 간 관계가 주제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인물의 특징, 개성, 관계 등을 살려 효과적으로 작품을 제작해 보자.

▶ **쉴레**(Schiele, Egon/오스트리아/1890~1918) **이중 자화상**(종이에 구아슈/32.5×49.4㎝/1915년) 적개심을 가지고 정면을 노려보는 인물과 위에 기대어 있는 인물 모두 작가 자신이다.

표정 포착하기

인물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하여 감정과 성격을 표현할 수 있다.

▶ **강주혁**(학생 작품) **행복한 나**(종이에 연필/29.7×21㎝)

◀ **할스**(Hals, Frans/네덜란드/1583~1666) **웃는 소년**(목판에 유채/지름 30.4㎝/1625년) 아이가 웃는 모습을 거친 붓 터치로 빠르게 표현하여 스냅 사진을 찍은 것 같은 효과를 전달한다.

관계 담아내기

인물의 자세와 복장, 동세 등을 관찰하여 인물 사이의 관계나 사건을 나타낼 수 있다.

▶ **커샛트**(Cassatt, Mary/미국/1844~1926) **어린아이의 목욕**(캔버스에 유채/100.3×66㎝/1893년) 아이의 발을 씻겨 주는 모습에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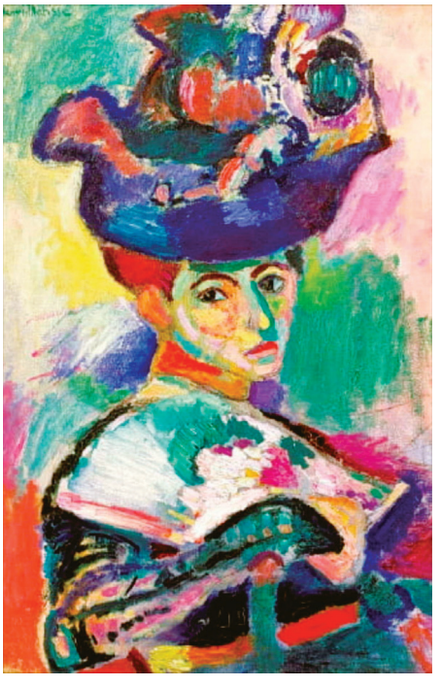
▶▶ **렘브란트**(Rembrandt, Harmensz van Rijn/네덜란드/1606~1669) **야경**(캔버스에 유채/363×437㎝/1642년)

색다르게 표현하기

인물을 다양한 시점, 색상, 재료 등으로 표현하여 색다른 분위기와 느낌을 나타낼 수 있다.

▶ **박채윤** (학생 작품) **자화상**(종이에 수채/29.7×21㎝)

▲ **김진주**(학생 작품) **친구 얼굴**(종이에 잡지, 사진 콜라주/39×27㎝) 잡지에서 다양한 색상의 종이를 오려 붙여 표현하였다.



▶ **마티스**(Matisse, Henri/프랑스/1869~1954) **모자를 쓴 여인**(캔버스에 유채/81×60㎝/1905년)

사물이 주인공인 그림

일상의 사물을 그린 그림을 정물화라고 한다. 사물의 형태, 구도, 시점 등에 변화를 주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사물이 지닌 다채로운 색상과 질감, 구조 등을 관찰하고 화면에 다양하게 배치하여 표현해 보자.

▲ 정면에서 바라본 바구니

정물을 바라보고 배치하는 방법

정물은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여러 방향에서 관찰하고 다양하게 배치한 정물을 표현해 보자.

▲ 삼각형 구도

샤르댕(Chardin, Jean-Baptiste-Siméon/프랑스/1699~1779) **정물화**(목판에 유채/17×21㎝/1733년) 한 방향에서 바라본 일상 속 정물의 모습을 삼각형 구도를 활용하여 표현해 통일감과 안정감이 느껴진다.

▲ 위에서 바라본 항아리와 주전자

◀ **세잔**(Cézanne, Paul/프랑스/1839~1906) **바구니가 있는 정물**(캔버스에 유채/65×81㎝/1890년) 여러 방향에서 본 장면을 한 화면에 배치하여 변화와 개성이 느껴진다.

▶ 원형 구도

마티스(Matisse, Henri/프랑스/1869~1954) **정물화: 블랙 필로덴드론과 레몬**(캔버스에 유채/731×60㎝/1943년)

▲ 마름모 구도

키슬링(Kisling, Moï'se 폴란드→프랑스/1891~1953) **신문이 있는 정물화[네이처 모르토 저널]**(캔버스에 유채/81×100㎝/1913년)

▲ 일직선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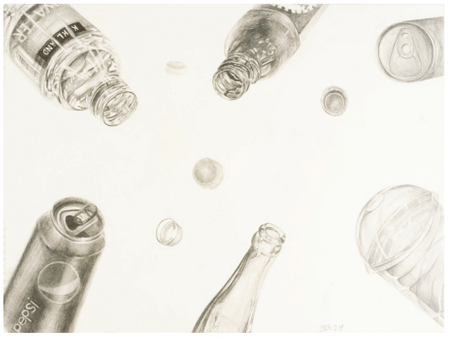
모란디(Morandi, Giorgio/이탈리아/1890~1964) **정물화**(캔버스에 유채/32×56.5㎝/1939년)

비율과 질감에 집중하기

정물은 자기만의 비율과 질감을 지닌다.
비율을 변형하거나 질감을 강조해서 나타내 보자.

◀ **보테로**(Botero, Fernando/콜롬비아/1932~2023) **의자 위에 있는 바이올린**(캔버스에 유채/165×123㎝/2005년) 정물의 본래 비율과 크기를 변형하여 풍만한 양감이 드러나도록 표현하였다.

▶ **김호성**(한국/1975~) **외형 30S**(캔버스에 유채/60.6×60.6㎝/2015년) 위에서 바라본 정물의 모습을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 **이연서**(학생 작품) **다양한 음료의 세상**(종이에 연필/27.2×19.5㎝) 플라스틱, 병, 캔 등 다양한 질감의 정물을 자유롭게 배치하여 표현하였다.

사물에 의미를 담기

화가들은 다양한 목적과 쓰임새를 지닌 물건에 의미와 상징을 담아 표현하기도 한다. 정물에 표현된 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찾아보자.

▲ **김명지**(한국/1970~) **책가도**(한지에 채색/65×60㎝/2018년) 책가도는 벼루, 붓, 책, 먹 등 학문과 출세를 상징하는 사물을 그려 넣은 그림이다. 조선 후기 왕실과 상류층에서 유행했지만 점차 민간에도 널리 퍼졌다.

▲ **클라스**(Claesz, Pieter/독일→네덜란드/1597~1660) **해골과 붓이 있는 정물화**(캔버스에 유채/24.1×35.9㎝/1628년) '허무'라는 뜻을 가진 바니타스는 재물의 덧없음, 시간의 무상함,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소멸을 상징하는 해골, 유리잔, 시계, 낡은 책 등으로 이루어진 네덜란드 정물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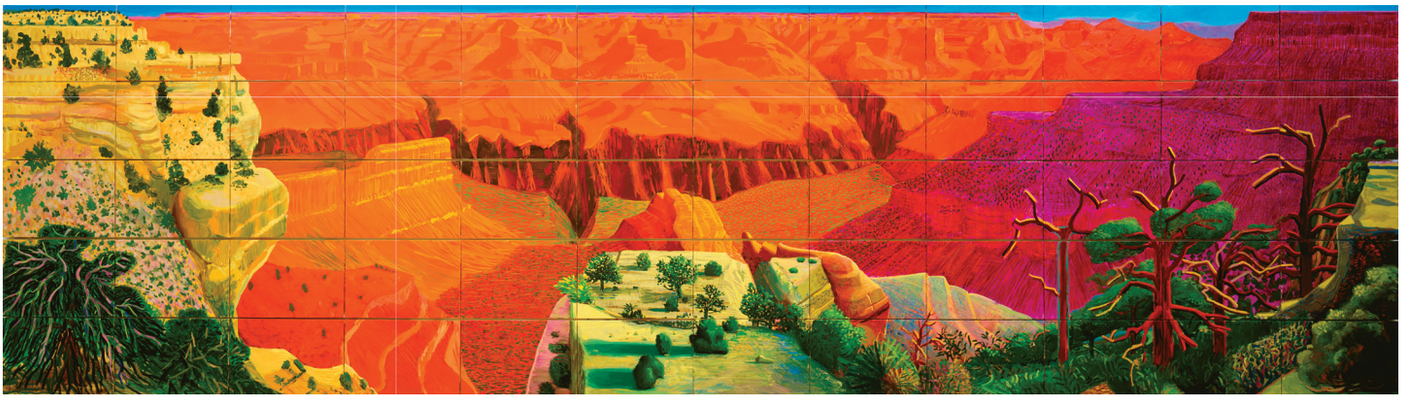
▲ **박신우**(학생 작품) **현대 사회의 정물화**(종이에 아크릴/27×39㎝) 현대에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 준 다양한 사물을 모아 표현하였다.

알고 가기 정물화와 인물화의 기묘한 만남

궁정 화가였던 아르침볼도가 그린 〈베르툼누스〉를 살펴보자. 위엄 있고 권위적으로 표현된 기존 왕의 초상화와 다르게 미술사 최초로 과일, 채소, 식물 등을 결합하여 얼굴을 표현했다. 이는 루돌프 2세를 고대 신화에 나오는 계절과 식물의 신인 베르툼누스에 비유하여 왕의 통치력으로 나라의 경제와 문화가 번영을 누리게 되었음을 찬양하고 홍보한 것이었다.

〈정원사〉는 일반적인 정물화 같아 보인다. 하지만 작품을 거꾸로 뒤집으면 인물의 형상이 보인다. 아르침볼도는 식물과 사물 등 정물화 소재를 조합하여 인간의 얼굴처럼 보이는 정물 초상화라는 형식을 창안했다.

▲ **아르침볼도**(Arcimboldo, Giuseppe/이탈리아/1527~1593) **(좌) 베르툼누스**(목판에 유채/68×56㎝/1591년) 루돌프 2세를 계절과 식물의 신인 베르툼누스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우) 정원사**(목판에 유채/36×24㎝/1587~15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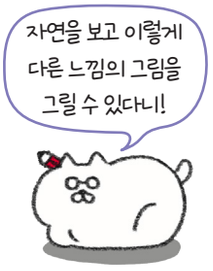
▲ **호크니**(Hockney, David/영국/1937~) **더 큰 그랜드 캐니언**(캔버스에 유채/207×744.2㎝/1998년) 60개의 캔버스를 이어 붙여 파노라마가 펼쳐진 듯한 풍경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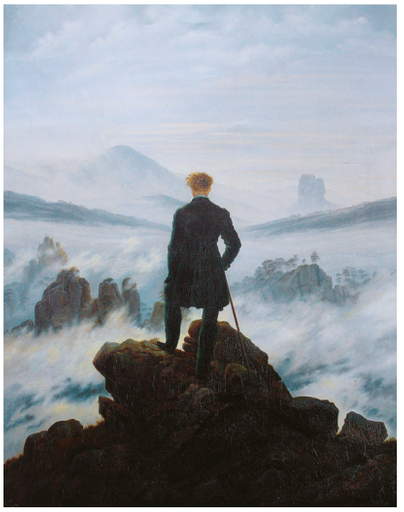
풍경을 표현하다

호크니의 〈더 큰 그랜드 캐니언〉을 보자. 그랜드 캐니언의 광활함이 느껴지는가? 변화무쌍한 풍경은 재밌는 그림의 소재가 된다. 같은 장소여도 계절, 날씨, 시간 또는 풍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나만의 풍경화를 그려 보자.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시점과 구도가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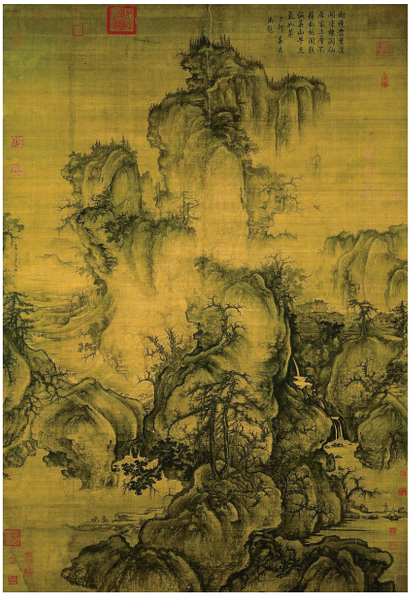


▶ **프리드리히**(Friedrich, Caspar David/독일/1774~1840)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캔버스에 유채/98.5×75㎝/1818년) 거칠게 몰아치는 바다 앞에 선 인물이 화면의 중앙에 크게 표현되었다.

▲ **정선**(조선/1676-1759) **금강전**도(종이에 수묵 담채/130.8×94.5㎝/1734년) 금강산을 실제로 관찰하여 그린 진경산수화이다. 수많은 봉우리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전체적으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표현했다. 우뚝 솟은 비로봉과 아래로 가로지르는 만폭동 계곡, 부드러운 토산과 대비를 이루는 뾰족한 암산 등을 한 화면에 재구성하여 표현해 자연 속에서 유람하며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공간을 나타내는 방법

원근법은 3차원의 공간을 2차원 평면에 표현하는 방법이다. 동양에서는 주로 자연을 관찰하는 기본적인 시점을 모두 종합한 삼원법*을 사용하였고, 서양에서는 소실점을 기준으로 선을 연장하여 공간을 표현하는 선 원근법*과 멀리 있는 풍경을 흐리게 표현하는 공기 원근법*을 사용하였다.



◀◀ **곽희**(郭熙/북송/1000?~1087?) **조춘도**(비단에 수묵 담채/158.3×108.1㎝/1072년) 다양한 시점에서 산을 관찰하고 여백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이른 봄날의 풍경을 표현하였다.

◀ **호베마**(Hobbema, Meindert/네덜란드/1638~1709) **미델하르니스의 가로수**(캔버스에 유채/103.5×141㎝/1689년) 1점 투시 도법을 사용하여 공간감과 원근감이 잘 드러난다.

풍경을 묘사하는 방법

어떤 묘사 방법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풍경화의 느낌이 달라진다. 섬세하게 묘사하거나 단순화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 **컨스터블**(Constable, John/영국/1776~1837) **흰 말**(캔버스에 유채/131.4×188.3㎝/1819년)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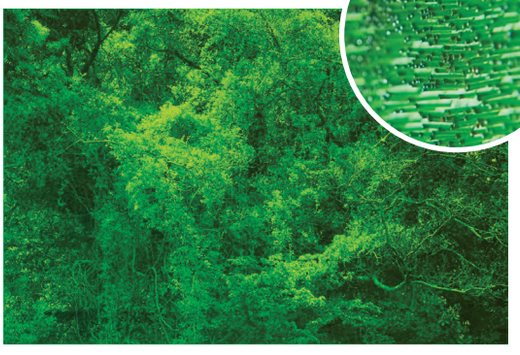
▲ **캐츠**(Katz, Alex/미국/1927~) **일몰 2**(캔버스에 유채/121.9×167.6㎝/2008년) 세밀한 부분을 생략하고, 대담한 채색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작가는 풍경의 일부를 확대한 뒤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 **김보희**(한국/1952~) **향하여, 2023**(캔버스에 채색/260×162㎝/2023년) 긴 수평선을 기준으로 나뉜 하늘과 바다를 채색 수묵 기법으로 반복적으로 채색하여 깊이 있는 자연의 모습을 나타냈다. 동일한 크기의 두 작품을 이어 붙인 작품이다.

표현 재료의 확장

전통적인 재료 외에도 청바지, 못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풍경화를 표현할 수 있다.

▲ **최소영**(한국/1980~) **관광 도시**(데님 천/185×483㎝/2010년)



▲ **유봉상**(한국/1943~) **ET20190801**(나무 패널에 핀 못, 아크릴/100×150㎝/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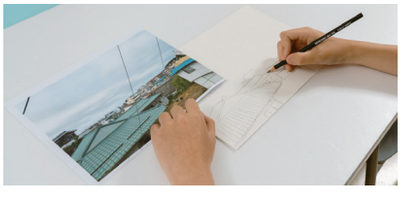
표현 활동 주변 풍경 표현하기

표현 재료

도화지, 연필, 유성 볼펜, 지우개, 수채 물감, 붓

❶ 주변 풍경을 촬영한다.

❷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생략하고 공간을 재구성하여 스케치한다.



❸ 유성 볼펜으로 외곽 선을 긋고 물감으로 채색한다.

▲ **정민규**(학생 작품) **마을 스케치**
(종이에 유성 볼펜, 수채/27×39㎝)

▶ **김연아**(학생 작품) **소중한 풍경**
(종이에 유성 볼펜, 수채/39×27㎝)

일상생활을 담은 그림

풍속화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담은 그림이다. 미술가가 그린 풍속화를 보면 그가 살던 시대와 문화를 담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해 다양한 디지털 도구로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시대의 일상을 담은 풍속화를 다양한 재료로 재미있게 표현해 보자.

▲ **서기환**(한국/1971~) **사람 풍경-GO! GO!**(비단에 채색/76×120㎝/2016년)

다양한 일상 엿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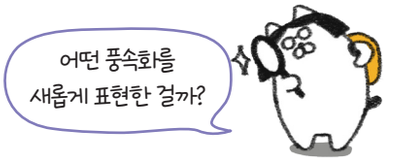
과거 풍속화 속 인물들의 행동, 복장 등을 보고 당시 문화와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다.

▲ **브뤼헐(부)**(Brueghel, Pieter(the Elder)/네덜란드/1525~1569) **농부들의 춤**(목판에 유채/114×164㎝/1568년)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 **김홍도**(조선 후기/ 1745~1806) **점심, 《단원 풍속도첩》**(종이에 담채/28x23.9cm) 농사일을 잠시 멈추고 점심을 먹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익살스럽게 표현하였다.

풍속화와 함께 떠나는 시간 여행

과거 풍속화의 장소나 인물을 현대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작품의 배경과 결합하여 색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 **최은숙**(한국/생년 미상) **신(新)인왕제색도**(장지에 혼합 채색/96×146㎝/2015년) 유년 시절 기억이 담긴 전통 시장의 배경과 정선의 인왕제색도, 조선 시대 풍속화의 인물을 한 화면에 함께 배치하여 표현하였다.

▲ **김순정**(학생 작품) **춤의 탄생**(종이에 수채, 색연필/27×39㎝)

표현활동

다양한 재료로 표현하는 일상 네 컷

표현 재료

도화지, 한지, 수채 물감, 붓, 색연필, 오일 파스텔, 붓 펜, 태블릿 PC

나는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꼭 피아노를 친다.

매일 다니는 등굣길이지만
기분과 날씨에 따라
색다른 느낌을 준다.

학교 복도에 있는 거울 앞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는다.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린다.

❶ 평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인물, 정물, 풍경을 촬영한다.

❷ 사진 속 대상과 분위기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 표현한다.

▲ **전예진**(학생 작품) **하루를 돌아보며**(혼합 재료/91×34㎝)

단원 점검하기

- [ ] 인물화, 정물화, 풍경화, 풍속화의 특징과 표현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가?
- [ ]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꽃들이
죽지 않도록
나는 꽃을 그린다.
- 프리다 칼로 -